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와 우크라이나*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

이 논문은 19세기 당시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와 20세기 초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견해, 나아가서 스탈린주의의 본격적 등장 이후의 '제국'으로서의 소련의 특성과 소련 몰락 이후의 러시아 제국주의의 여러 특징, 그리고 러시아 제국주의가 현재에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의 성격과 그 전쟁에 대한 좌파의 대응 문제에 대해 논해왔다. 산업자본주의 발전 이전에 이미 본격화되고, 서구와 달리 19세기 말까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이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않았던 러시아 제국주의는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의해서 그 '기형성'이나 전근대성 등이 일찍이 지적됐다. 이 '기형성'에 대해 레닌이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1917년 반(反)제국주의적 10월 혁명의 변질, 혁명 와중에서 출현된 급진적 정권의 보수화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소련의 새로운 제국은 '참여형' 제국이었다. 이 제국은 러시아 주변부 이(異)민족들의 간부층을 '주니어 파트너'로서 포섭, 관리했다. 거기에서 1917년 혁명으로부터 이어받아 정권 명분 차원에서 이용해 온 사회주의적 수사까지 영향을 미쳐, 국제 좌파의 많은 구성원들은 '제국'으로서의 소련의 성격을 다소 간과했다. 소련 몰락 이후에는 일종의 '군사-자원의 제국주의' 패턴을 굳혀왔다. 금융, 기술 등의 차원에서의 패권이 결여된 이 '하위' 제국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구미권 (세계 체제 중심부) 세력에 비해 그 총체적인 세계적 비중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러시아가 다시 19세기의 '기형적' 제국주의로 — 다만, 자본주의 세계 체제 발전의 새 단계에서 — 돌아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상대적 약체성(性)이나 미국 제국주의의 하위 경쟁 세력으로서의 그 입장에 중점을 두어서 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일종의 '차악'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의 소련의 제국적 성격에 대한 간과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좌파의 일각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을 극복해 러시아 제국주의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패배를 지지하는 것이 좌파로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

*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96299).

** Oslo University, vladimir.tikhonov@ikos.uio.no

증하려 한다.

주요 용어: 마르크스, 레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이론

1. 들어가며: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과 러시아

칼 마르크스(1818~1883)는 유럽 열강들의 세계 침략이 한참 진행되고, 세계적 규모의 식민주의 체제가 구축돼 가고 있었던 시기를 살았던 사상가였다. 그 이론적 탐색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자본의 운동,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법칙들이 있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성립과 운영이 그 사회 '외부'에 대한 침략 내지 침윤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간과했을 리가 없었다. 『공산당 선언』(1848)에서 논급됐듯이, 자본주의사회만이 기계를 동원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었던 저가 상품들이 “모든 만리장성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 세계에 강요하려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무력을 보완한다는 것이다(Marx and Engels, 2004[1848]: 121). 즉, 마르크스의 제국주의론은 애당초부터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자본주의 국가의 무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유럽 바깥 식민지뿐만 아니라 유럽 안에서의 자본주의 국가의 대규모적인 무력 사용에도 적용됐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내전』(1872)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노예화를 위해 운용되는 자본주의국가의 “가장 저열하고 가장 최종적인 단계”로 프랑스나 독일의 제국주의를 서술한다(Marx, 1971: 72).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체제 내에서의 제국주의적 무력 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테제를 제기한 셈인데, 이 테제는 차후 마르크스주의적 전쟁·평화론에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국가 발전의 “최종적 단계”라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 단계를 피해 갈 수 없다는 논리가 됐던 것이다.

유럽 열강들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러시아 제국은 비록 서구 열강들과 오랫동안 각축해 왔지만 그 기본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몇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 1853~1856년간의 러시아와 유럽 열

강들 사이의 크림 전쟁을 대상으로 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널리즘적 글들을 보면, 그들이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반쪽 동양의 국가”로 묘사하고, 특히 터키 제국의 영토에 대한 그 욕망을 이반 3세(1462~1505) 이후의 남진적(南進的)인 영토 팽창 정책의 일환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Marx and Engels, 1953 [1853-1856]: 121~20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크림 전쟁을 유럽의 자본주의적 제국과 러시아라는 사실상 전(前)자본주의적 제국 사이의 충돌로 이해하고, 후자의 패배를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이해했다. 만약 러시아가 전자본주의적 제국이였다면, 그 제국이 이미 자본주의적 발전을 거듭하는 서구와 힘을 겨룬다는 일 자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르크스가 1856~1857년에 런던의 《프리 프레스》에다 연재한 일련의 러시아 외교사 관련 글에서 제시해 봤다. 나중에 『18세기의 외교 비사(秘史)』(1899)라는 제목으로 마르크스 사후에 같이 묶여 출판된 그 글들에 의하면, 14~15세기 이후의 모스크바 왕국은 피지배자들을 ‘절대적인 노예 상태’로 위치시키는 몽골 제국의 관료적 전제(專制) 정치를 모방했으며, 18세기에는 그 전제 정치라는 기본 틀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서구 열강들의 관료조직 등 기술적 근대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서구 열강과 경쟁이 가능한 보그드문 비(非)서구 열강이 됐다는 것이다(Marx, 1899[1856-1857]: 74~91). 러시아, 러시아 국가, 그리고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선구자인 플레하노프(1856~1918)도 공유했다. 그가 본 19세기 말까지의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全) 국토를 국가가 소유하고, 농노가 된 농민들이 생산하는 잉여의 대부분을 국가에 복무하는 ‘관료형(型) 귀족’들이 수취하는, 서구보다 중국과 더 가까운 국가 만능의 사회였다(Plekhanov, 1906: 12~14). 러시아 제국주의란, 결국 국민 공동체들에 대한 국가적 착취를 골간으로 하는 관료 제국을 위한 영토, 즉 수취 기반의 확장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각의 기본 논리였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러시아를 전자본주의적 관료 제국이라는 틀로만 설명하기는 이미 불가능했다. 러시아 제정 정권과 외국자본의 주도로 러시아가 점차 공업화됐으며, 이와 동시에 러-일 전쟁(1904~1905)이나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도 지속해 왔다. 플레하노프의 직접적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레닌은 비록 러시아 관료국가의 ‘아시아적 성격’,

즉 전자본주의적 성질을 종종 언급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의 총체적인 성격을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라고 규정한다. 러시아에서 이미 과독점적 성격의 금융자본과 자본과 기술, 노동의 집중 정도가 높은 공업이 발달돼 이란이나 만주, 몽골 등 그 침략을 당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주의적 방식(즉, 투자와 교역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착취하지만, 전체적으로 침략의 방향은 자본의 요구가 아닌 군사적 논리로 결정되고, 침략의 결과로 얻어진 중앙아시아 등 식민지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요한 착취의 방식은 고(高)세율의 징세를 통한 현지인들에 대한 국가적 착취였다는 것이다. 무(無)권리 상태에 있는,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 제국 총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異)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배제, 차별 등이 궁극적으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의 소비니즘을 고취시켜 혁명의 기운을 차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도 레닌이 중점을 둔 부분이었다(Lenin, 1958[1914-1915]: 318).

종합해 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플레하노프와 레닌 등이 1917년 혁명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서구 각국의 제국주의와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가 본 러시아 제국이 농민 공동체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적 근대를 선택적으로만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전자본주의적 국가로 남아 있는 영토 팽창 지향의 제국이었다면, 레닌이 본 20세기 초반의 러시아는 고도로 발달된 일부의 공업을 가지면서도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의 그것보다 군사적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영토 팽창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실현되는, 강한 군사력과 비교적 덜 강한 경제력의 불균형이 심한 군사-봉건적 제국이었다. 이런 기형적,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 관료주의적 제국에의 편입이나 그 제국의 이(異)민족에 대한 통제의 강화 등을, 레닌은 러시아 제국주의 정책들의 피해자의 입장에서서 역사적 불행으로 여겨 강하게 성토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에는, 레닌은 1913년에 우크라이나어 교육에 대한 금지의 방침 등 민족문화 내지 언어에 대한 제정러시아 정권의 탄압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철저한 비민주성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민족자결권, 즉 독립의 권리까지 포함한 모든 민주적 권리들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의 관철이 오로지 우크라이나 노동(勞農) 대중과 러시아 노동 대중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레닌은 잊지 않고 언급했다(Lenin, 1958[1913]: 128).

2. 소련은 과연 어떤 제국이었는가?

러시아인과 이(異)민족 사이의 ‘연대’는 1917년 혁명을 뒤이은 내전에서 볼셰비키들이 이길 수 있었던 한 원인이었다. 반대편의 백위군(白衛軍)은 대체로 “러시아 제국 영토의 보전”을 요구한 반면에, 볼셰비키들은 “소수자들에게의 자결권까지의 민주적 권리의 부여”를 공공연하게 원칙으로 삼았다(Alexiev and Wimbush, 2018: 23~39). 볼셰비키들을 원동(遠東)에서 강력하게 지지, 지원한 것이 바로 항일(抗日)적 성격의 재러시아 고려인들의 유격대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익히 알고 있다(Pak, 1995: 37~113).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수자들에게 제반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약속하고,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들의 식민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한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는, 일단 대략적으로 제정러시아의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애당초부터 제정러시아 영토의 이 소비에트화(化) 과정은, 꼭 제국주의적 요소가 없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로 조지아(그루지아)의 운명을 들 수 있다. 1918년에, 러시아 제국 와해의 한 결과로서 건국된 조지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집권 정당은 온건파 사회민주주의자인 멘셰비키들이었다. 그들이 농지 개혁을 지향한다고 하여 도심 노동자 이외에는 상당수 농민들의 지지도 끌어안아 의회 다수당이 될 수 있었다. 독립국이 된 조지아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도 애당초에 1920년의 모스크바 조약을 맺어 사실상 국가로서 인정한 셈이었다. 한데 1921년 초까지 이미 코카서스(캅카스)의 다른 지역의 영토를 무력으로 접수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조지아에서의 지역적인 급진적 무장 운동의 발발 등을 핑계로 삼아 조지아를 침공하여 정복했다. 망명을 택한 멘셰비키 지도부는 전 세계 사회당 및 사회민주당에 호소하여 이 침공을 저지할 것을 당부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세계의 사회주의자 내지 사민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조지아의 망명 정부가 호소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정부 입장에서도 조지아의 영토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만큼 이제는 러시아 제국을 승계한 볼셰비키들에게 접수돼도 무방했다(King, 2008: 162~165, 172~173). 그러나 이와 같은 ‘옛 제국 영토의 접수’는, 그 당시, 즉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레닌이 애당초에 내건 ‘민족자결권’과 조화될 수 있었는가?

물론 볼셰비키들은 스스로도 ‘옛 제국 영토의 승계’가 내포하는 문제점들을 인지했다. 그들이 제시한 소수민족 독립의 대안은 다름이 아닌 ‘현지화(korenizatsiya)’ 전략이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실시됐던 그 전략의 일환으로는,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해서 비(非)러시아인들이 사는 지역마다 형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인 독립국가’ 자격의 ‘연방공화국’(우크라이나 등 러시아 이외에는 도합 14개의 공화국들)과 ‘연방공화국’보다 하급인 ‘자치공화국’ 내지 ‘자치 구역’, 또는 ‘민족 마을 소비에트’ 등이 생겼다. 예컨대 재러시아 고려인들이 살았던 원동의 마을에서는 ‘민족 마을 소비에트’의 모든 공식 문서는 조선어로 꾸며졌는가 하면, 소련의 192개의 민족들은 전부 다 민족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됐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는 우크라이나어가 되어 재우크라이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어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연방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 등에서는 권력의 상당 부분을 현지인 출신의 ‘민족 간부’들이 나누어 가지게 됐다. 원동의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344개의 ‘민족 학교’ 이외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인 사범대학’까지 1931년에 문 열어 ‘민족 교육’의 담당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그 당시에는 오로지 조선어로 일체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학은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식민지 조선에도 없었다(Pak, 1995: 216~217; Slezkine, 1994). 얼핏 보면, 비록 소련 초기의 옛 러시아 제국 영토 승계의 과정은 다소 비(非)민주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 해도, 이와 같은 ‘각 민족문화 융성’의 광경은 레닌이 성토했던 ‘이(異)민족들의 무(無)권리 상태’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초기 소련을 “역차별 정책의 제국”(Martin, 2001)으로 만든 혁명 이후의 적극적인 탈(脫)제국주의 정책의 한 가지 문제는, “역차별 정책의 제국”도 궁극적으로 다름 아닌 “제국”이었다는 점이였다. 비록 그 제국의 최상층에서는 권부(權府)의 중심에 상당수 소수자 출신(조지아인 스탈린이나 유대인 카가노비치, 핀란드인 쿠우시넨 등등)이 포진했지만,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여전히 위계적이며 수직적이었다. 마르크스의 『18세기의 외교 비사(秘史)』가 서술했던 가산(家産) 국가의 최고의 가부장으로서의 세습적 황제를 나름대로의 관료적 합리성을 상징하는 ‘공산당 총서기’가 대체하게 됐지만, 여전히 ‘중심’은 일원적으로 ‘주변’들을 통치했다. 그 일원적인 통치의 최상층을 이루는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Politburo)에서 급진파와 실용파,

그리고 스탈린 같은 관료 지배층 이해관계의 대변자들이 나름대로 서로를 견제했던 1920년대 말까지 ‘중심’은 ‘주변’들에 대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고 ‘주변’ 지역 간부층의 이해관계도 고려해 주었지만, 스탈린의 독재가 노골화되던 1930년대 초반부터 ‘주변’에 대한 ‘중심’의 정책도 훨씬 더 강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와 같은 강압은 이미 1932~1933년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인들의 집단지역 속에서 길이 남게 될 초대형 비극으로 이어졌다.

1932년 여름과 가을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소련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기후 조건은 농사에 극도로 좋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흉작이 예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생산 중심의 공업화에 전력을 경주했던 스탈린 주도의 ‘중심’은 우크라이나 등 여러 지역 농촌에서의 곡물 징발 할당량을 오히려 늘리기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급한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농촌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식량을 잃어 농민들에게 생존의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집단 농장 소유의 곡물 한 톨이라도 가져갔다가 발각되는 굶주린 농민들은, 1932년 8월 7일 자의 ‘공동 소유의 공고화 및 국영 기업소와 집단 농장, 협동조합 등의 재산 보호하는 데에 관하여’라는 ‘중심’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징역 10년까지 언도받을 수 있었다. 굶주린 농민들이 도시로 도망가는 등 농업을 함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같은 해에 ‘내부 여권’(일종의 주민등록증) 관련 법률이 통과돼 그 ‘내부 여권’에서 대도시 거주권 도장이 찍히지 않는 소도시나 농촌 주민들의 대도시 무(無)허가 이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은 권력기관들의 감시와 처벌 정책 속에서 1932~193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적어도 2백 50만 명가량의 농민과 소도시 주민들이 집단 아사(餓死)했다(Davies and Wheatcroft, 2004: 409~441; Zemskov, 1995).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대량 아사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 초대형 참사에 대한 정보는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에서도 공개돼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역사 인식의 핵심적 일 부분이 됐다. 카자흐스탄에서도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카자흐 유목민들에 대한 가축 징발 정책 등 ‘중심’의 조급한 공업화를 위한 자원 총동원 정책 실시의 일환으로 카자흐 민족 총인구의 약 38~42% 정도가 집단 아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Cameron, 2018: 141~168). “역차별 정책의 제국”은 이처럼 스탈린 독재 시기의 초기부터 소수자들의 대규모적 아사(餓死)의 제국이 됐다. 레닌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았던 소비에트 국가였지만, 급진적 공업화 정책 등 결정적인 국면마다 레닌

이 성토했던 “이(異)민족의 무(無)권리 상태”의 유령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아무리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어도, ‘중심’이 ‘주변’ 위에 군림하는 제국의 구조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다.

1953년에 사망한 스탈린 독재의 시절에는, 1930년대 초반까지 실시됐던 ‘현지화’ 정책으로 그 발언권이 나름대로 강해진 소수민족 간부나 소수민족 지식인층에 대해 탄압의 철퇴가 내려져 ‘중심’의 무게가 비대칭적으로 커졌다. 스탈린 집권기에는 약 20만 명가량이 되었던 고려인 민족은 1937년의 강제 이주를 당하고, 상당수 혁명가 등 지식인을 포함해서 3,289명의 고려인들이 총살형을 당했지만(Son, 2013: 262),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연방공화국’에서도 현지인 출신의 간부·지식인들에 대한 타격은 가히 꺾멸적이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중후반에 ‘반동 범죄’ 등으로 징역 이상의 (총살을 포함한) 탄압을 받은 인원은 약 50만 명에 달하고, 1936~1937년에 우크라이나 연방공화국의 모든(!) ‘인민 위원’(장관)과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 위원 등은 징역 내지 총살형을 받았다. 총살을 당한 우크라이나인 간부의 자리에,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우크라이나인보다 훨씬 더 러시아화(化)된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들이 임명됐다(Vasiliev, 2006: 141~143). 우크라이나 등 ‘연방공화국’들의 형식적인 ‘국가’로서의 위치나 각종 ‘자치공화국’ 등의 형식적인 자치권, 그리고 각급 공화국에서의 현지인 간부들의 주도적 위치 등은 스탈린의 대숙청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소수민족 출신의 간부들에게 특히 가혹했던 대숙청은 다시 한번 ‘중심’과 ‘주변’의 위계 서열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서열은 소련의 몰락 직전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제정러시아는 서구와 달리 자본의 이해관계보다 (특히 군부의) 관료들 본위의 ‘기형적인’ - 레닌의 말대로 ‘군사-불건적인’ - 제국이였다면, 스탈린 이후 자본 대신에 국가가 공업 경제를 운영했던 소련 제국의 특수성은 그 일종의 ‘참여적’ 성격에 있었다. ‘주변’의 간부층은 ‘중앙’의 간부층으로서는 ‘식민지 엘리트’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주니어 파트너’와 같은 위치였다. ‘연방공화국’들의 간부들은 대부분 현지인 출신의 ‘민족 간부’였고, 그 ‘연방공화국’들은 국방 기능이나 독자적인 비밀경찰은 없었지만(비밀경찰 등 국가 폭압 기구들은 전부 다 ‘중심’의 직접적 지휘 계통이었다) 일단 독자적 공산당 조직과 각종 정부 부서 등 ‘국가’의 기본 틀들을 갖추고 있

었다. ‘연방공화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도 학습됐지만 적어도 현지민을 위한 교육은 현지 민족어로 실시됐다. 각 ‘연방공화국’의 민족문화는 상당한 지원금을 받았으며, 소수민족 작가들의 작품들은 국비로 러시아어로 대량으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연방공화국’의 경제 발전이나 토건 공사 등 중요한 정치·경제 관련 결정들을 전부 ‘중심’에서 했으며 ‘중심’의 간부들은 ‘주변’의 간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권력과 권위를 누렸다. 군이나 비밀경찰, 공산당 중앙위 등 ‘중심’의 핵심 기관에서는 러시아화된 동부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시인을 포함하여 러시아인이나 러시아화된 일부 소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가 지도자 격인 공산당 총서기 직을, 스탈린 사망 이후 그 어떤 소수자도 가질 수 없었다(Nefedov, 1994; Vihavainen, 2017). ‘참여형(型)’의 소련 제국에서는 ‘연방공화국’들의 간부층은 일단 ‘중심’이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는 각각의 ‘연방공화국’에서는 국방 등 폭력 독점 기능을 제외한 국가의 제반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고, ‘소련 공민에의 소속’을 전제로 해서 일종의 ‘국민 만들기(nation building)’를 해나갈 수 있었다. 사실 특히 우크라이나처럼 그 비중이 크고 독자적 외무부와 유엔 대표까지 보유했던 ‘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그 토착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민족주의적 경향’의 혐의를 받아 자주 경질 등 각종의 견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 독자성을 키워나갔다(Bertelsen, 2019). ‘중심’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 ‘주변’의 간부들이 각자 독립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국민국가’를 꾸릴 준비는, 이미 소련 후기에 어느 정도 돼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달아야 한다. ‘참여형’의 제국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국인 만큼 그 존재의 기반을 이룬 것은 어디까지나 ‘무력’이었다. 동유럽 등 소련의 위성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소련 군대가 출동했다. 헝가리의 1956년 소련 침공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소련 침공은 바로 그런 경우였다. 1980~1981년 폴란드의 정치 위기 상황에서도 소련 지도부가 군사개입의 가부(可否)를 논의했지만, 서방의 경제제재 등의 가능성이 제기돼 결국 폴란드의 친소련 군부가 스스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선에서 그쳤다(Kramer, 1999). 루마니아처럼 1960~1970년대에 소련의 지배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 위성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중립 국가에 더 가까운 위상을 확보하는 드문 경우(Crump, 2015: 170~213)도 있었지만, 대체로 동유럽에 대해서는 소련이 무력

에 기반을 둔 지배를 실시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그 지배를 현지에서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것은 바로 현지의 간부층 엘리트들이었다. 스탈린주의의 황금기인 1945~1953년 이후에는 이들의 진화의 궤도도 - 소련 '연방공화국' 지배층들과 마찬가지로 - 주로 '민족화', 즉 (소련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한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었다(Westad, 1994). 위성국가에서 그 현지 하위 파트너(현지 지배층)로 하여금 '민족화' 쪽으로 진화하도록 적당한 운신의 폭을 허용해 준 것도, 소련식 '참여형' 제국의 외부적 통치 방식의 특징이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1956년이나 1968년에 일어난 소련 제국에 의한 동유럽 국가의 '이탈 방지'를 위한 대외 군사작전은, 많은 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한 '전례'가 된 것도 분명히 사실이다.

제정러시아의 '군사-봉건적'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정교회(正敎會) 신앙과 왕권신수설이었다면, 1917년 10월 혁명을 그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으로 여겼던 소련 '참여형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교조화되고 일종의 도그마 수준에 머무르게 된 공식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국가의 사멸'을 연결시킨 것을 염두에 두면 제국형 국가가 그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주의'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아이러니였다. 물론 소련공산당이 허용한 '공식적' 해석 이외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 어떤 이견(異見)도 소련 체제 내에서 불허되고, 『18세기의 외교 비사(秘史)』 등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그 『전집』의 러시아어판에서 빠지는 등 사실상 금서 목록에 올라 있었다(Anderson, 2010: 47). 그런데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외형(外形) 뒤에는 레닌이 누차에 걸쳐서 비판, 성토했던 그 '대러시아 소비니즘'의 잠재적 의식이 '중심'의 간부층들에게 여실히 보였다. 스스로도 학계 간부의 삶을 소련에서 살다가 서방(정확히는 서독)으로 망명하여 거기에서 소련의 지배층으로서의 간부층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미하일 보슬렌스키(1920~1997)는, 본인이 체험적으로 익히 알고 있었던 간부층의 주된 이데올로기를 '대국적 소비니즘'이라고 정의했다. 간부들이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나 레닌의 인용문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예컨대 소련 사회에 대해서는 계급론적 분석을 절대 적용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언젠가 사멸돼야 할 과도기적 존재'로 절대 인식하지 않았다. 반대로 국가야말로 그들의 주된 충성의 대

상이었으며, 스탈린 이후에는 그들은 소련이라는 국가를 러시아 제국의 적합한 ‘계승자’로 일차적으로 인식했다. 도움이 되거나 충분히 러시아화된 소수자도 ‘중심’의 간부층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형식상 다민족 국가인 소련은 그 ‘중심’의 간부들에게는 일차적으로 “러시아인들의 국가”였다(Voslensky, 1990: 435~448). 이와 같은 ‘중심’ 간부층의 ‘민족화’는 소련의 몰락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그 몰락 뒤에 러시아에서 형성된 정치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정착에도 궁극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3. 소련 이후의 러시아, 또는 군사적 제국의 귀환

소련의 몰락은 ‘필연’과 ‘우연’, ‘객관적’ 요소와 역사 무대에 오른 각 세력과 개인들의 행동에 따르는 ‘주관적’ 요소들이 뒤섞인 복합적 과정이었다. 일단 소비에트 시절의 간부층이 -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계속 간직하던 그렇지 않던 - 일종의 관료 자본가층으로 확대·발전하고, 관료들의 통제를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의 혼합 경제를 용인한 것은 아마도 역사적 ‘필연’에 속했을 것이다. 다소의 시차나 누양스적 차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북한 등 소련과 구조상 같은 당-국가(party-state)에서 같은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필연성을 입증한다(중국의 국가 관료 자본주의의 탄생과 형성에 대해 Meisner, 1996 등 참조). 한데 간부층의 자본화가 ‘제국의 몰락’을 수반한다는 것은 꼭 ‘필연’에 속하지 않았다.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간부층이 지배하는 당-국가야말로 국가 관료 자본주의로 이동할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에는 당-국가가 해체됨과 동시에 그 당-국가가 지배했던 제국도 아울러 해체돼 ‘연방공화국’들이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됐다는 것은 거시적인 역사의 논리(스탈린주의적 당-국가의 국가 관료 자본주의로의 불가피한 진화 과정)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과정이었다.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고르바초프의 지도부가 독점권을 누리는 국영기업들의 폭리 추구 경향을 막지 못해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등 각종 경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연방공화국’ 및 각급 지역 간부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본화 과정의 ‘관리’에 실

패해 소련 몰락의 계기를 스스로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였다(예를 들어 Zubok, 2021: 43~70 참조). ‘경제 관리’에 실패한 소련공산당은 결국 공중분해되고, 소련은 15개의 독립국가로 나누어지게 됐다.

1991년 이후 구소련 지역에서 진행된 역사적 과정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착안하게 된다. 첫째, 일부의 조직 폭력 내지 지하 경제 구성원 출신이나 지식인층 출신 등이 가세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소련 이후 관료 자본가(영리 추구를 하는 현직 관료와 그 친인척 및 현직 관료들의 행정 자본을 이용하는 정경유착형 자본가 등)나 일반 대자본가, 중간 자본가까지 대부분 간부층 출신들이다. 크게 보서는 소련 말기의 간부층이 ‘자본화’된 것은 최근 수십 년간 구소련 지역 역사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다(이 과정을 일찍 분석한 전문 연구로, Kryshantsovskaya, 1995 등이 있다). 한데 예컨대 새로운 지배층의 여러 분파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 외형상 ‘의회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특히 푸틴 정권이 출범한 2000년부터 러시아 지배층의 최상층에 포진하게 된 구소련 안보 및 군·경 기관 출신(‘실로위키’, 즉 ‘무력파’)들은 강력한 – 그리고 1인 지배 패턴이 매우 뚜렷한 – 일원적 정치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안보 기관 출신 관료들의 충성을 독점하는 푸틴 중심의 ‘행정부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 기관(사법부, 입법부 등)들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푸틴 시대 ‘정권 국가(regime state)’의 특징이다(Sakwa, 2020: 35~51).

둘째, 구미권 중심의,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에 비교적 쉽게, 그 중심부(유럽연합)의 주변 지역(발틱 3국)이나 자원 공급자로서의 주변부(중앙아시아 5국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등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나머지 구소련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핵무기와 고도로 발달된 무기 생산 산업을 물려받은 만큼 처음부터 구소련 지역을 독자적 ‘이해 권역(sphere of interests)’으로 여기려는 등 제국(주의적) 자세를 취해왔다. 단, 약 2007~2008년 이전까지 푸틴 정권은 이와 같은 구소련 지역에서의 독자적 ‘이해 권역’의 구축은 구미권 세력과의 ‘협조’ 속에서 가능하리라고 믿고, 대(對)서방 대립보다 ‘협력 속에서의 경쟁’ 노선을 추구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과 미·영 군사 협력의 전례 등도 일찍 있었기에, 푸틴 정권은 초기에 이와 같은 대(對)서방 협력 노선의 지속을 기대했다. 특히 독일의 자원 판매, 그리고 독일로부터의 투자와 정밀기계 및 기술 수입이 2000년대 러시아의 고속

경제 개발의 중요한 요소였다(Pakhomov et. al., 2013). 한데 2007~2008년쯤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나토(NATO) 가입설이 공론화되는 등 구미권 세력에 의한 러시아의 독자적인 ‘이해 권역’의 승인이 어려우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되자 푸틴은 대(對)서방 대립의 강화와 군 현대화의 가속화, 무기 생산 사업의 선(先)발달 등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장기적 정책을 결정했다(Sakwa, 2020: 152~166).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는, 미국발(發) ‘정권 교체’ 등 미국의 초국가적 헤게모니 전략의 도구로서의 나토에 대한 러시아 엘리트들의 고정된 의식,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러시아 안보 관료들의 의식 등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Tsygankov, 2018).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군사화 정책의 논리적 귀결점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제정러시아 시절의 러시아 제국주의는 서구와 달리 ‘자본’의 이해관계보다 ‘제국 관료’, 특히 군사 관료의 이해관계를 훨씬 더 많이 반영했다. ‘투자’나 ‘완제품 시장 확보’ 등 서구 제국주의의 전형적 목표들이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 ‘기형적인’ 제국주의다 보니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아예 그 제국주의의 기원을 15세기 이후 러시아의 가산(家産) 관료 제국의 영토 확장 경향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레닌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이 ‘기형성’에 대해 ‘군사-봉건적’이라는 그 유명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특징을 오늘날 소련 이후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있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자본의 제국’으로서의 러시아는 비교적 약하다. 예컨대 해외의 저임금 노동이나 자원 지대에 대한 경제적 착취(영여가치 수취)의 주요 도구는 바로 대외 직접투자인데, 2020년 현재 러시아의 대외 직접투자의 누적 총액(약 58억 달러)은 한국의 그것(약 320억 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했다(The World Bank, 2020). 미국이나 영국 내지 네덜란드 등 세계의 주요 ‘투자 대국’과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일환으로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의 전자 연결 네트워크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제 총액의 0.21%만이 러시아의 루블화를 그 단위로 했다(Richter, 2022). 즉, 러시아는 국제 기준 통화의 역할을 하는 경화(硬貨) 발행을 통해서 국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못하다. 러시아는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 대외 투

자역이 미미하고 러시아의 통화가 국제시장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러시아의 제국주의는 자국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원활한 통화 시장 유통을 보장할 수 있는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규칙'에 비교적 무관심하다. 반대로, 러시아는 세계 석유 생산의 12%를, 그리고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제조업·금융 자본의 제국'보다 '자원의 제국'에 훨씬 더 가깝다(BP, 2021). 러시아의 군대는 미군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둘째로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Karpova, 2016) 정확히 제정러시아 시대의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를 이제 '군사-자원의 제국주의(military-resource imperialism)'가 대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금융이나 재정 차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약하며, 히틀러처럼 밑으로부터의 극우 운동에 힘입은 선동가 출신도 아닌 푸틴이라는 보수적 관료 출신을 그 수반으로 하는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국가는, 야심 찬 '세계 정복', 즉 구소련 권역 이외의 침략 행위를 앞으로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데 구소련 권역 국가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국주의 영향권으로의 편입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발언권보다 군과 안보 기관들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용이 가능한 자원 지대들에 대한 점령과 통제에 관심이 높은 '군사-자원 제국주의'인 만큼 자원 부국(富國)인 인접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러시아가 개시한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한데 오늘날 러시아 제국주의를 '군사'나 '자원 지대 점령'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러시아의 새로운 지배층이 소련 시대의 간부층을 그 모태로 하는 만큼 소련식 '참여형' 제국주의 특징도 러시아 제국주의의 구조에서 여실히 엿보인다. '나토 가입' 등 러시아의 독자적인 '이해 권역'을 본질적으로 이탈하겠다는 뜻을 굳힌 2014년 이후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크렘린은 무력 수단을 이용해 왔지만, 친러파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재임: 2010~2014)에게는 150억 달러어치의 차관 대여를 제안하는 등(Trindle, 2014) 오히려 그와 그 주위의 - 주로 소련 시절 간부층 출신의 - 엘리트들에게 러시아 중심의 체제에의 '평화적 편입'을 알선하려 했다. 예컨대 러시아의 '이해 권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는 (거의 전부 소련 시대 간부층 출신인) 현지 권위주의 국가 엘리트들에 대한 포섭 작전을 펼치고 그들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한편 평민들에게는 러시아에서의 이민 노동의 기회를, 중산층들에게는 러시아 대학에서의 학습 등을

각각 제공해 주는 등 주로 현지에서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Lo, 2015: 15~17).

사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엘리트들이 탈(脫)러 노선을 취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어떻게 보면, 소련 간부층의 후계자로서의 푸틴 정권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권역에서는 옛 간부층 계열의 모든 지배자들을 아우르는 러시아 중심의, 러시아 주도 - 그러나 비교적 느슨한 - 제국적 블록(bloc)을 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앞으로는 모스크바의 지배자들은, 이 블록을 미국 중심의 북미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 내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네트워크와 같은 레벨의 지역 블록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데 2013~2014년의 우크라이나의 소위 ‘유로마이단(Euromaidan)’ 저항운동은, 러시아 정권의 이와 같은 ‘큰 그림’과 정반대의 정치적 방향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 서명을 요구해 사실상 러시아 주도의 블록이 아닌, 유럽연합과의 점차적 통합을 요구했는가 하면, 부정부패와 무능의 이미지를 비취운, 상당수가 소련 시대에 뿌리를 둔 야누코비치 대통령 주위의 기존 관료층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Zelinska, 2015). 이와 같은 소련 간부층 출신의 관료들은 푸틴이 구축하고자 하는 제국적 블록의 중추였어야 했는데, ‘유로마이단’은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유로마이단’이 결국 승리하고, ‘유로마이단’을 계승한 우크라이나의 역대 정권들이 탈(脫)러 노선을 굳힌 이상, 결국 2022년에 전면전으로 변진 러시아 군사개입은 애당초부터 시간의 문제였다. 우크라이나처럼 확고한 탈(脫)러 노선을 택하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더라도 군사적 정복과 점령의 노선을 택해 ‘자본’보다 ‘군사’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그 제국주의의 특징을 재확인했다.

4. 나가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저항

일부 국내의 좌파는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개시한 침공을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본다(이 시각을 Callinicos, 2022가 전형적으로 나타

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항전 능력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큼,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의 권력자들이 그 지원의 목표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과제를 언급한 만큼 대리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데, ‘대리전’임을 주장하는 좌파 사상가도 인정하듯이(Callinicos, 2022),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당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장에 우크라이나를 편입시키는 방향의 ‘국민국가 만들기(nation-building)’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는 탈식민 국민국가 만들기(post-colonial nation-building)라고 봐야 한다. 소련은 아무리 ‘참여형 제국’이었다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국’이었고,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역사는 1932~1933년의 ‘홀로도모르’ 등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량 인명 희생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탈식민 국민국가 만들기는, 바로 이와 같은 집단기억들을 그 도구로 삼는 것이다(Himka, 2013). 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의 실질적인 목표를 아직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들지만(러시아 정부나 어용 언론들이 거론하는 ‘탈나치화’ 등은 정치 수사 이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러시아군이 현재 (2022년 6월 중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주로 남부와 동부)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로의 편입, 즉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일단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도되곤 한다(Santora, Nechepurenko and Onishi, 2022). 즉, 러시아의 ‘군사-자원의 제국주의’가 곡창 지대(헤르손 지역)이고 석탄 채굴 지대(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인 피점령 지역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자원을 이용하려 하는 만큼 러시아가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강탈 전쟁’을 벌인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 전쟁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 세력인 구미권 제국주의와의 ‘대리전’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해도, 그 일차적인 본질은 탈(脫)러 노선의 국민국가 만들기를 시도한 구소련 국가에 대한 영토, 자원, 그리고 인력(인구)의 강탈이다. 좌파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쟁에 저항하고, 적어도 침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독립에의 권리(민족자결권)와 생명, 안전에의 권리,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피해자로서의 존엄에의 권리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리전’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일종의 양비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일각의 좌파들이 있다(이와 같은 입장은 예컨대 North, 2022에서 설명된다).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일차적으로 대리전으로 간주하면서 이런 대리전에서 러시아보다 그 지배의 범위도 훨씬 넓고 그 지배력도 훨씬 강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 좌파도 가끔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스탈린주의 계열의 러시아 연방 공산당(Budraitkis, 2022)의 ‘국제주의 포기’를 정면 비판한 그리스 공산당은, 이와 동시에 그 실천적 투쟁에서는 무엇보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전쟁에의 개입을 반대하는 싸움에 집중한다(KKE, 2022). 그리스처럼 나토에 이미 가입돼 있는, 즉 미국 제국주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갈등들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우리 편’ 지배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려는 태도는 일면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푸틴 전쟁 – 일부의 영미권 좌파의 주장(Guyer, 2022)과 반대로 –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침략의 단순한 ‘모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의 행동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논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 그리고 그 지배의 구체적인 방식 등은 제정 러시아 제국으로서나 소련 제국으로서의 핵심적 문제에 속한 것이었다. 제정러시아와의 계승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오늘날 러시아의 ‘군사-자원의 제국주의’는, 세계사상 거의 전례도 찾기 어려운 서방 제재들이 끼치는 경제적 손해를 무시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를 그 어떤 양보도 불가능한 그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자원의 제국주의’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에 비해 ‘약체’인지 몰라도, 6월 하순 이전까지는 적어도 약 1만 명의 민간인과 약 1만 5,0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사망케 하고(실질적 인명 손실은 그것보다 2~3배로 추산된다: Habershon et. al., 2022), 우크라이나의 총국민생산을 약 절반으로 축소시킨(Asahi Shimbun, 2022)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큰 참극에 속할 것이다. 그만큼 푸틴의 침공, 나아가서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세계 좌파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저항의 대열에 러시아의 민중들도 언젠가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경쟁 세력인 서방에 대한 대리전으로 포장하기에 대다수의 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약 절반의 러시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약 30%는 조건부로 전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Treisman, 2022). 한데 푸틴 체제는 아직까지 대중의 전쟁 동원에 어느 정도 성공해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침공 개시 이후부터 계속 지적해 왔다. 도시 중간층, 그리고 특히 중상층에 비해서 도시 빈민들이 - 전쟁에 따르는 불황에 그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만큼 - 전쟁에 대한 지지를 훨씬 덜 나타낸다는 것이다(Mingazov, 2022). 즉, 비록 매우 초보적인 형태긴 하지만, 제국주의적 강탈 전쟁에 대한 어떤 **계급적 태도**의 맹아를, 이미 러시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직 노동자와 영세민, 자영업자 사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탈린주의 지향의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지도부는 푸틴 중심의 ‘정권 국가’에 포섭된 만큼 예상대로 바로 전쟁 지지를 선포했지만 (Budraitkis, 2022), 원동과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등 특히 소수민족이 많은 ‘지방’에서의 많은 당원, 그중에서는 특히 젊은 당원들은 고전적 레닌주의의 제국주의 전쟁 비판론에 힘입어 반전 입장을 취해왔다(Rabkor, 2022).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로 세계 학계와의 단절을 당해 커다란 타격을 받은 학술 연구자층(반전 여론은 약 85%) 다음으로 반전 여론이 강한 계층은 바로 실업자와 청년 노동자, 그리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반전 여론은 약 40%)라는 점이다(Pryanikov, 2022). 즉, 그 신분이 안정되고 국가 관료 자본주의 체제에 강하게 포섭돼 있는 국영 부문의 노동자나 연금 생활자들이 국가가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각종의 **불안 노동자층**(청년, 비공식 부문, 예비 노동군 등)은 이에 비해 훨씬 더 **계급적** 이해관계에 가까운, 체제와의 거리 두기를 전제로 하는 입장을 더 많이 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차후 러시아에서 혁명적 좌파가 다시 형성되면 어떤 계층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그 응답을 시사해 주는 바 있다.

앞에서 논증한 것처럼, 산업자본주의 발전 이전에 이미 본격화되고, 서구와 달리 19세기 말까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이 뒷받침해 주지 않았던 러시아 제국주의는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의해서 그 ‘기형성’이나 전근대성 등이 일찍이 지적됐다. 이 ‘기형성’을 레닌이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라고 유명하게도 명명했다. 거기에 다 소련 시대에는 1917년 반제국주의적 혁명 변질, 혁명 외중에서 출현된 급진적 정권의 보수화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소련의 새로운 제국은 ‘참여형’ 제국이었던 만큼 많은 이들에게 제국과 질적으로 다른 국가 형태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었

다.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의 ‘군사-자원의 제국주의’는 누가 봐도 미국을 비롯한 구미권(세계 체제 중심부) 세력에 비해 그 총체적인 세계적 비중은 상당히 제한적이 었다. 종합해 보면, 마르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제국주의는 구미권의 그 것과 그 성질도 여러 모로 달리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구미권(세계 체제 중심부)에 비해 산업적 경제력이나 금융 차원의 영향력, 기술력이 비교적 약했던 만큼 구미권의 제국주의와 비교됐을 때에 일종의 ‘하위(junior)’ 제국주의로 쉽게 인식될 수 있었다. 과거에도 몇 차례에 걸쳐 그랬듯이, 이 ‘하위’ 제국주의가 미국 등 ‘상위’ 제국주의와 갈등을 빚었을 때에 일부의 좌파들이 ‘하위’ 제국주의를 일종의 ‘차악’으로 여겨 그 비판의 초점을 주로 미국에 맞추는 경향은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우크라이나 좌파 활동가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Bilous, 2022). 러시아 제국주의는 세계 제국들의 힘의 서열에서는 분명히 ‘최강’의 자리에 있는 적도 없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하위’ 제국주의에 미국 제국주의와 다른 잣대를 적용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러시아 제국의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곡창 지대 및 석탄 매장 지대의 점령 등 자원과 영토의 강탈은 그 보수적 국가 관료 자본주의 체제의 포섭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반대로, 러시아 제국주의 패배는,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이미 그 맹아적 형태를 보이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계급적** 반대의 여론을 보다 강화시켜 차후 러시아 급진 좌파 재건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수행에 도움 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러시아 국내의 마르크스주의자 등을 포함한 좌파 활동가들로서는,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에 서는 것은 논리적일 것이고 미래 지향적인, 진정한 의미의 국제주의적인 태도일 것이다. 비록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아직도 높은 오늘날에는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할 입장이고 국가적 탄압의 위험을 초래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 좌파의 성장에 거름이 될 입장이라고 본다. 적어도 해외에 생활하며 활동하는, 즉 러시아 국내에서의 탄압에 노출되지 않는 좌파적 학자나 활동가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22년 6월 17일 투고, 6월 30일 심사, 7월 4일 게재 확정)

□ 참고문헌

- Alexiev, Alexander R. and S. Enders Wimbush(eds.). 2018. *Ethnic Minorities in the Red Army: Asset Or Liability?* London: Routledge.
- Anderson, Kevin. 2010. *Marx at the Margins: On Nationalism, Ethnicity, and Non-Western Societ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sahi Shimbun*. 2022. “Damage from War in Ukraine Equal to Half of its GDP.” - *Asahi Shimbun*, May 12: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619217> (검색일: 2022.7.4).
- Bertelsen, Olga. 2019. “Political Affinities and Maneuvering of Soviet Political Elites: Heorhii Shevel and Ukraine’s Ministry of Strange Affairs in the 1970s.” *Nationalities Papers*, Vol.47, No.3, pp.394-411.
- Bilous, Taras. 2022. “Self-Determination and the War in Ukraine.” *International Viewpoint*, May 5: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643> (검색일: 2022.6.17).
- BP. 202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2021.” <https://www.bp.com/content/dam/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pdfs/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s-review-2021-russia-insights.pdf> (검색일: 2022.6.16).
- Budraitkis, Ilya. 2022. “Russian ‘left’ split over Ukraine war.” *Le Monde Diplomatique*, June: <https://mondediplo.com/2022/06/06russian-left> (검색일: 2022.6.17).
- Callinicos, Alex. 2022. “The conflict in Ukraine is an imperialist proxy war.” *Socialist Worker*, May 2: <https://socialistworker.co.uk/alex-callinicos/the-conflict-in-ukraine-is-an-imperialist-proxy-war/> (검색일: 2022.6.16).
- Cameron, Sarah. 2018. *The Hungry Steppe: Famine, Violence, and the Making of Soviet Kazakhst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rump, Laurien. 2015. *The Warsaw Pact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ern Europe, 1955-1969*. London: Routledge.
- Davies, Robert and Stephen Wheatcroft. 2004. *The Industrialisation of Soviet Russia, Volume 5: The Years of Hunger: Soviet Agriculture, 1931-1933*. Basingstoke: Palgrave.
- Guyer, Jonathan. 2022. “How the Left is Reckoning with Russia’s War.” *Vox*, March 9: <https://www.vox.com/22961542/left-democrats-russia-war-ukraine-us>

(검색일: 2022.7.4).

- Habershon, Sarah, Rob England, Becky Dale and Olga Ivshina. 2022. “War in Ukraine: Can we say how many people have died?” *BBC World News*, July 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1987945> (검색일: 2022.7.4).
- Himka, John-Paul. 2013. “Encumbered Memory: The Ukrainian Famine of 1932-33.”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Vol.14, No.2, pp.411-436.
- Karpova, Marina. 2016. “Russia ranked world’s 2nd military power after U.S.” *Russia Beyond the Headlines*, February 17: https://www.rbth.com/defence/2016/02/17/russia-ranked-worlds-2nd-military-power-after-us_568639 (검색일: 2022.6.16).
- King, Charles. 2008. *The Ghost of Freedom: A History of the Caucas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KE(그리스 공산당). 2022. “On the Imperialist War in Ukraine and the Stance of the CPRF.” April 23: <https://inter.kke.gr/en/articles/On-the-imperialist-war-in-Ukraine-and-the-stance-of-the-CPRF/> (검색일: 2022.7.4).
- Kramer, Mark. 1999. *Soviet Deliberations during the Polish Crisis, 1980-1981*. Special Working Paper No. 1,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publication/ACF56F.PDF> (검색일: 2022.7.4).
- Kryshstanovskaia, Ol’ga V. 1995. “Transformation of the Old Nomenklatura into a New Russian Elite.” *Sociological Research*, Vol.34, No.6, pp.6-26.
- Lenin, Vladimir. 1958[1913]. “Kak Yepiskop Nikon Zashchishchaet Ukrainsev.” (니콘 주교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어떻게 옹호하는가), - *Polnoe Sobranie Sochineniy* (전집), Vol.24, pp.127-128.
- _____. 1958[1914-1915]. “Sotsializm i Voina.” (사회주의와 전쟁), - *Polnoe Sobranie Sochineniy* (전집), Vol.26, pp.309-350.
- Lo, Bobo. 2015. *Frontiers New and Old: Russia’s Policy in Central Asia*. Paris: IFRI.
- Martin, Terry Dean. 2001.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193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rx, Karl. 1899[1856-1857]. *Secret Diplomatic History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leanor Marx Aveling and Edward Aveling(eds.). London: Swan

Sonnenschein & Co.

- Marx, Karl and Frederick Engels. 1953[1853-1856]. *The Russian Menace to Europe*, in Paul Blackstock and Bert Hoselitz(ed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71. *Writings on the Paris Commune*. in Hal Draper(ed.).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_____. 2004[1848].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in Hal Draper, *The Adventures of the Communist Manifesto*, 109-195, Alameda, CA: Center for Socialist History.
- Meisner, Maurice. 1996. *The Deng Xiaoping Era: An Inquiry into the Fate of Chinese Socialism, 1978-1994*. New York: Hill and Wang.
- Mingazov, Sergei. 2022. “Molodye i Bednye: Sotsiologi Nazvali Naibolee Patsifistski Nastroennye Gruppy Rossiyan.” (젊은 층과 빈민층: 사회학자들은 러시아인들의 가장 평화 지향적 사회 집단들을 확인했다) - *Forbes.ru*, April 19: <https://www.forbes.ru/society/462929-molodye-i-bednye-sotsiologi-nazvali-naibolee-pacifistki-nastroennye-gruppy-rossian> (검색일: 2022.6.16)
- Nefedov, Viktor. 1994. *Nomenklatura Imperii: Issledovanie Krizisa* (제국의 간부층: 위기에 대한 고찰). Nizhniy Novgorod: Volgo-Vyatskiy Kadrovyy Tsentr.
- North, David. 2022. “Letter to a Young Trotskyist in Russia.” - WSWS (World Socialist Web Site), June 30: <https://www.wsws.org/en/articles/2022/06/30/oqgd-j30.html> (검색일: 2022.6.30).
- Pak, Boris. 1995. *Koreitsy v Sovetskoy Rossii*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고려인들). Irkutsk: Irkutskiy Gosudarstvennyi Pedagogicheskiy Institut.
- Pakhomov, Anton, Viola von Cramon-Taubadel and Marat Balasanyan. 2013. “Architecture and Dynamics of Russian-German Economic Relations.”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Vol.7, No.1, pp.12-22.
- Plekhanov, Georgiy. 1906. “K Agrarnomu Voprosu v Rossii.” (러시아의 농업 문제에 대해서) - *Dnevnik Sotsial-Demokrata* (사회민주주의자의 일기) 5.
- Pryanikov, Pavel. 2022. “Tri Rossii: Kto i Kak Otnositsya k Voennoi Spetsoperatsii v Ukraine.” (세 가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을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Novye Izvestiya*, May 18: <https://newizv.ru/article/general/18-05-2022/tri-rossii-kto-i-kak-otnositsya-k-voennoy-spetsoperatsii-v-ukraine> (검색일: 2022.6.17)

- Rabkor. 2022. “V Yakutii Obsuzhdali ‘Spetsoperatsiyu’ i Raznoglasiya Sredi Kommunistov.” (야쿠티야에서 ‘특수 군사 작전’과 공산당원 사이의 이견을 토론했다) – *Rabkor*, June 16, https://rabkor.ru/columns/events/2022/06/16/in_yakutsk_they_discussed_the_special_operation_and_disagreements_among_the_communists/ (검색일: 2022.6.17)
- Richter, Felix. 2022. “Russian Ruble Plays Minor Role in Global Payments.” <https://www.statista.com/chart/26943/currency-composition-of-payments-processed-on-swift/> (검색일: 2022.6.16)
- Sakwa, Richard. 2020. *The Putin Paradox*. London: I. B. Tauris Bloomsbury.
- Santora, Marc, Ivan Nechepurenko and Norimitsu Onishi. 2022. “Moscow Moves to Russify Seized Ukraine Land, Signaling Annexation.” *New York Times*, May 19: <https://www.nytimes.com/2022/05/19/world/europe/moscow-russifying-captured-territory.html> (검색일: 2022.6.16)
- Slezkine, Yuri. 1994. “The USSR as a Communal Apartment, Or How a Socialist State Promoted Ethnic Particularism.” *Slavic Review*, Vol.53, No.2, pp.414-452.
- Son, Zhanna. 2013. *Rossiyskie Koreitsy: Vsesilie Vlasti i Bespravie Etnicheskoy Obshchnosti* (재소 한인들: 절대적 국가 권력과 힘 없는 약소민족). Moskva: Grif.
- The World Bank. 2020.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outflows: Korea, Re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M.KLT.DINV.CD.WD?locations=KR> (검색일: 2022.6.16)
- Treisman, Rachel. 2022. “What Russians think of the war in Ukraine, according to an independent pollster.” *NPR*, April 18, <https://www.npr.org/2022/04/18/1093282038/russia-war-public-opinion-polling?t=1655454018850> (검색일: 2022.6.17)
- Trindle, Jamila. 2014. “The Loan That Launched a Crisis. The Ukrainian conflict isn’t just about politics.” *Foreign Policy*, February 21, <https://foreignpolicy.com/2014/02/21/the-loan-that-launched-a-crisis/> (검색일: 2022.6.16)
- Tsygankov, Andrei P. 2018. “The Sources of Russia’s Fear of NAT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51, No.2, pp.101-111.
- Vasiliev, Valerii. 2006. “The Great Terror in the Ukraine, 1936-38.” in *Stalin’s Terror Revisited*, Melanie Ilic(ed.). pp.140-162.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Vihavainen, Timo Juhani. 2017.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How did the Bolsheviks Cope with National Sentiments?” in *The Fall of an Empire, the*

- Birth of a Nation: National Identities in Russia*, Chris J Chulos and Timo Piirainen(eds.). 75-97. London: Routledge.
- Voslensky, Mikhail. 1990. *Nomenklatura: Gospodstvuyushchiy Klass Sovetskogo Soyuzu* (간부층: 소련의 지배층). London: Overseas Publication Interchange.
- Westad, Odd Arne. 1994. "Introduction: The Rise and Fall of the Communist Bloc." in *The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1945-89*, Sven G. Holtsmark, Iver B. Neumann and Odd Arne Westad(eds.), 1-9. London: The Macmillan Press.
- Zelinska, Olga. 2015. "Who were the protestors and what did they want? Contentious politics of local Maidan across Ukraine, 2013-2014."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Vol.23, No.4, pp.379-400.
- Zemskov, Viktor. 1995. "K Voprosu o Masshtabe Repressiy v SSSR." (소련에서의 탄압 정책의 규모에 관해서) -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ya* (사회학 연구) 9: pp.118-127.
- Zubok, Vladislav. 2021. *Collapse: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Yale: Yale University Press.

Russian Imperialism and Ukraine – a Marxist View

Pak Noja(Vladimir Tikhonov)

The present paper deals with Marx' and Engels' assessment of nineteenth-century Russian imperialism, Lenin's characterizations of early twentieth-century Tsarist imperialism, Soviet Union's 'imperial' characteristics, and, last but not least, with the main traits of Russia's post-Soviet imperialism, the character of its current invasion of Ukraine, and the questions of leftist reactions to this invasion. Alread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Marx and Engels discussed the 'abnormality' of Tsarist imperialism, with its continuity to post-fifteenth century continental territorial expansion of more 'feudal' (pre-modern) kind and its seeming lack of interconnectedness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apitalism (lagging behind, in Russia's case). Lenin, famously, defined this 'abnormality' as Russia's 'military-feudal imperialism.' As the Bolshevik government established by Leninists in 1917 was turning increasingly conservative in the wake of Stalin's consolidation of dictatorial power, Soviet Union was also demonstrating certain distinctively 'imperial' features. It was, however, a more 'participatory' empire, with local non-Russian cadres coopted into the Stalinist bureaucratic apparatus as junior partners of Moscow's apparatchiks. Since these apparatchiks were also constantly using the socialist rhetoric inherited from the 1917 revolution, the main legitimizing event for their regime, it was sometimes difficult to discern the 'imperial' traits inherent in Soviet Union'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In the wake of the Soviet collapse, the new Russian state, especially after 2000, consolidated the patterns which one, with Lenin's definition in mind, can characterize as 'military-resource imperialism.' Lacking either financial or technologic hegemony, Russia's imperialism is just as inherently weaker compared to its American (Western) competitors as Russia's 'abnormal' imperialism used to be in the age of Marx and Engels. However, the relative weakness of Russian imperialism, its characteristics as a junior competitor to the imperialism of the

world-systemic core, should **not** be used as a ground to see it as any kind of 'lesser evil' compared to its stronger core rivals. As the present paper argues, the international leftist movement, including Russian leftists, has all grounds to support a defeat of Russian imperialist invasion of Ukraine.

Key words: Marx, Lenin, Russia, Ukraine, imperialism theory